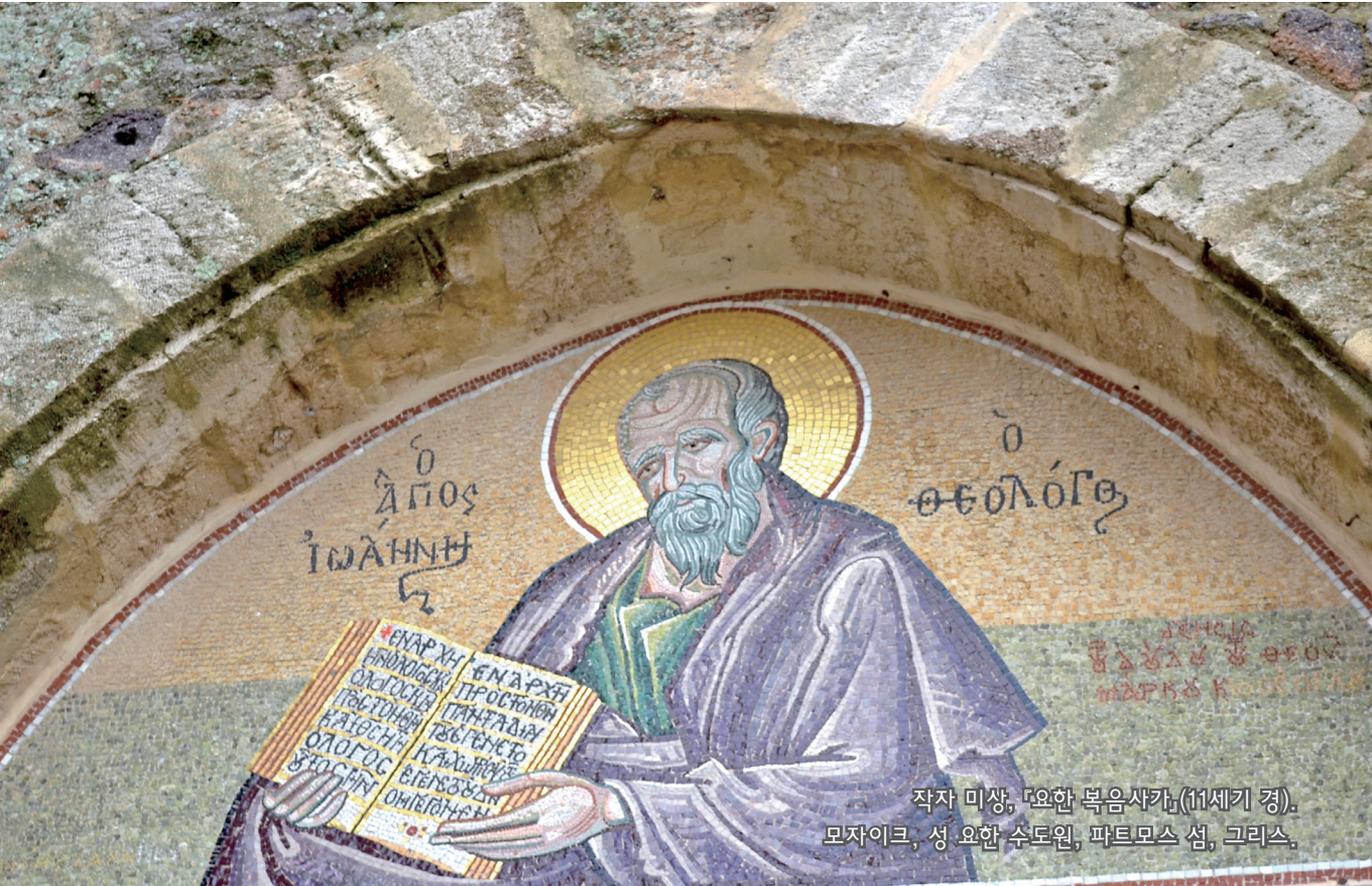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http://www.daegujobo.or.kr



작자 미상, 『요한 복음사카』(11세기 경).  
모자이크, 성 요한 수도원, 파트모스 섬, 그리스.

## † 오늘의 전례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루카 12,15-21 참조)

한가위의 큰 뜻은 감사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는 얼른 생각하면 그리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째서 주님께서는 그가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하다고 하십니까? 많은 재물을 얻고는 감사하는 마음보다 곳간 걱정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제1독서** 요엘 2,22-24,26 **제2독서** 묵시 14,13-16 **복음** 루카 12,15-21.

**입당송**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화답송**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영성체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 삼겹살 파티

박홍도 치릴로 신부 | 성요셉재활원 원장

1.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가장 싫은 잔소리가 있다네요. 10대에게는 “공부 잘하니?”, “반에서 몇 등 해?”, “대학은 어디 갈 거야?” 20대에게는 “애인 있니?”, “결혼 생각해 야지~”, “살 빼야겠다~”, “직장은?” 30대에게는 “결혼해야지?” 어른이 젊은이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 “어릴 땐 참 예뻐는데...”, “벌써 가게? 〇〇 오면 보고 가지.”, “어느 대학 붙었니?”, “결혼은 안 해?” 젊은이가 어른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 “엄마는 몰라도 되요.”, “어머니는 가만히 앉아계시지만 하세요.”, “다른 부모들은 〇〇〇 해 준다는데...” 서로를 걱정해주는 것이나 관심이 지나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이 즐거울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저는 성 요셉 재활원에서 사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101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집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씻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걷는 것도 많은 부분 도움을 받아야만 행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만큼은 이 세상의 누구보다 맑은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명절이 되어도 집에 가질 못하거나 갈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더 외롭고 쓸쓸합니다. 명절 아침에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미사를 해도, 송편을 만들고 윷놀이를 해도 될

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약한 분들이 명절이 되면 더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우리 가족들과 내 자신만 행복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요셉 재활원에 와서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건강 한 것은, 내가 돈을 번다는 것은 나만을,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하느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가정은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느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느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내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추석에는 친구들 돌보느라 고향 가지 못하는 선생님들과 보름달 아래에서 삼겹살 파티라도 해야겠네요. **필로**

2015년 세계관광의 날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담화문(요약)

## 10억 명의 관광객, 10억 번의 기회

세계 여행 관광객 10억 명 도래라는 상징적인 장벽을 넘어선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2030년에는 20억 명이라는 새로운 문턱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장은 이 세계적 현상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곧 관광객, 기업, 정부, 지역 공동체에, 그리고 물론 교회에도 도전을 제기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10억 명의 관광객은 반드시 10억 번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법이 변하고, 그 결과로 여행의 경험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객’이라는 고전적인 개념은 사라지고 있으며, 오히려 ‘여행자’라는 개념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회칙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경탄과 경이에 열려”있는 마음으로 자연에 접근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애와 아름다움의 언어”(『찬미받으소서』, 11항)로 말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는 10억 번의 기회를 잡아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이 분야의 기업들은 가장 먼저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궁극적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여행자들이 바라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환경을 존중하면서 이 일을 하여야 합니다. 각국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며, 개인의 존엄과 공동체와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지역 공동체들도 그들의 경계를 개방하여, 다른 나라에서 오는 이들을 환대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책임감 있는 형태로 관광을 늘리는 것은 특수성과 역사와 문화로 튼튼해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관광은 교회의 복음화 사명을 위한 10억 번의 기회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여행을 하는 동안 마음을 열고 스스로 물어 가며 진정한 최초의 복음 선포를 하도록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당 공동체의 환대를 향상시키고, 관광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교회의 임무는 또한 자유 시간을 잘 지내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자비의 희년을 경축하도록 우리 신자들을 소집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관광과 순례의 사목이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며 희망을 불어 넣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자비의 얼굴』, 3항)하는 영역이 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희년의 특별한 표지는 당연히 순례가 될 것입니다(14항 참조).

여행을 진정한 삶의 경험으로 변화시키는 10억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10억 명의 관광객, 10억 번의 기회는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바라신 그대로 존재하고 평화와 아름다움과 충만함을 위한 당신의 계획에 맞갖은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찬미받으소서』, 53항).

2015년 6월 24일,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의장 안토니오 마리아 벨리오 추기경  
사무총장 조셉 칼라티파람빌 주교

# 새로운 말 배우기-1

마석진 프란치스코 신부 | 계산본당 부주임



누구에게나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가장 큰 첫 걸음은 그 나라의 말을 배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을 배운다는 것을 넘어 소통을 의미하고, 함께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이틀 뒤 주일 미사에 당시 주임신부님이셨던 김종률 신부님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온 사제가 미사 경문을 읽으니

신기해하며 미사가 끝나자마자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문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스페인어는 라틴어와 같이 그냥 쓰인 대로, 발음대로 읽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 턱이 없었고, 읽을 줄 아니까 말도 할 줄 알겠지 하며 저에게 와서 말을 거는데, 저는 그저 아무 말도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저에게 욕을 했더라도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와,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그리고는 같은 날 저녁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원이 있는 코차밤바라는 도시로 떠났고,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스페인어를 스페인어로 배우는 것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학원의 기간은 5개월이었고, 그 기간 동안에는 홈스테이를 합니다. 코차밤바라는 도시는 고도가 약 2500미터에 달하는 곳으로 온도차이가 별로 없이 늘 건조하지만 분명 4계절이 있고, 특히 아침과 밤에 나타납니다. 제가 갔던 7월은 겨울이어서 아침저녁으로는 정말 추워 파카를 입어야 했고 낮에는 얇은 긴 팔 정도 입으면 됐습니다. 홈스테이 첫 날 밤, 주인아저씨가 저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려고 누웠더니 덮을게 하나 밖에 없어서 “도대체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자지?”하며 파카를 입고 잤습니다. 다음 날 밤, 또 아저씨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뭐라는 거지? 이불이나 좀 더 주지. 밑에는 두툼히 깔아주면서 왜 덮을 것은 안주지? 아, 추워” 하며 또 파카를 입고 춥게 잤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밤, 아저씨가 또 들어오시더니, 아예 자기가 침대에 누워서 시범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밑에 두툼히 깔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불이었고, 이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얇은 천으로 된 덮개였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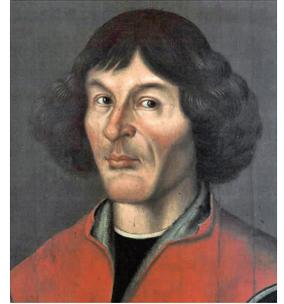
소통이란 이렇듯 중요합니다. 하느님과 소통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느님의 언어, 즉 사랑, 겸손, 인내, 희망의 언어를 배우고 그분과 대화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또한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하느님께 드려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과 소통하는 기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

## 지구는 돈다

사람들은 흔히 추석이 되면 밤하늘에 빛나는 크고 둥근 보름달을 기대하곤 합니다. 특히 올해 한가위 보름달은 일년 중 가장 큰 슈퍼문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낮과 밤이 생기고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은 바로 지구의 자전과 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당연하고 일상적인 상식이지만 500여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동설은 중세시대 과학과 교회 사이에서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이 지동설을 최초로 주장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1473~1543)는 신부님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바르미아대교구의 사제로 교회법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수학과 경제학은 물론 의학에도 능통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1523년에는 교구장이 선종하자 임시 교구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 틈틈이 천문학을 연구했던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들이 움직인다는 천동설에 반하는 지동설을 주장하며 1543년에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를 발표했습니다. 교회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정설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금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후대에 이르러 천문학과 물리학이 발전할 수 있는 혁명적 토대가 된 그의 주장은 갈릴레이와 뉴턴 등에 의해 수정·보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폴란드 동북부 프롬보르크 대성당의 지하묘지에 아무런 표시 없이 묻혀 있던 코페르니쿠스는 사후 467주년이 되던 지난 2010년에 비로소 '영웅'으로 복권되어 재매장되었습니다. **필문**

### 금주의 성인

9월 27일	성 빈첸시오 드 폴(신부, 설립자, 1581~1660년), 성 엘지아르(3회원, 1285~1323년) 성 힐트루다(수녀, 790년)
9월 28일	성녀 리오바(수녀원장, 782년), 성 벤체슬라오(왕, 순교자, 보헤미아, 907~929년) 성 엑스수페리오(주교, 툴루즈, 412년경), 성녀 테타(수녀원장, 772년경)
9월 29일	천사 가브리엘(대천사), 성녀 가이아나(동정 순교자, 아르메니아, 290년경) 천사 라파엘(대천사), 천사 미카엘(대천사), 성 프라테르노(주교, 순교자, 오세르, 450년)
9월 30일	성 그레고리오(주교, 증거자, 아르메니아, 240~326년), 성녀 소피아(과부, 2세기) 성 예로니모(신부, 교회학자, 성서학자, 347~419년), 성 호노리오(주교, 캔터베리, 653년)
10월 1일	성녀 (소화)데레사(수녀, 교회학자, 리지외, 1873~1897년), 성 로마노(부제, 음악가, 6세기경) 성 레미지오(주교, 랭스, 437~533년)
10월 2일	성 레오데가리오(주교, 순교자, 오팅, 616~679년), 성 엘레우테리오(군인, 순교자, 303년)
10월 3일	성녀 마리아 요세파 로셀로(설립자, 1811~1880년) 성 제라르도(신부, 수도원장, 브로뉴, 880~959년)

## ■ 교구 도보 성지순례 및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9월 19일(토) 교구 도보 성지순례에 참석하시고 한티 순교성지에서 순교자 현양미사를 봉헌하셨다. 미사 중 신자들과 함께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거행하셨다.

사진제공 : 월간 <빛>



## ■ 무학중고등학교 강당 축복식

대주교님께서는 9월 19일(토) 오후 5시 30분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무학중고등학교에서 신축 강당 축복식을 거행하셨다.

##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39주간, 2015. 9. 27~10. 3.>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니1-14장	호세1-5장	6-9장	10-14장	요엘	아모1-3장	4-6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호세아서』 백성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자신의 불행한 혼인 생활을 하나의 상징과 비유로 제시하면서 온몸으로 그들의 부정과 맞서 하느님의 한결같은 성실한 사랑을 증언하고자 한다.

『요엘서』 주제는 한마디로 “주님의 날”이라 할 수 있는데, 그날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물어 심판하시는 때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처부수시리라는 희망을 드러내는 때이다.

『아모소서』 중심 주제는 이웃과의 수평관계, 곧 사회 정의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정의는 오로지 하느님과 목숨을 함께 할 때만 가능해진다.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 팔월대보름달을 보면서

박성규 엘리지오



# 미사안내

포항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0월 1일(목) 19:30 4대리구청	푸른군대 첫토요 신심미사	10월 3일(토) 11:00 성모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10월 3일(토) 10:00 프란치스카눔	발달장애자와 가족을 위한 월미사	10월 4일(일) 16:00 성토마스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0월 3일(토) 11:00 대안성당	군중후원회 계산성당 9월 월례미사는 추석연휴 관계로 없습니다.	

## 성소 | 피정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10.4(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2)924-3048

### 살레시오회 성소 모임

일자: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대상: 살레시오회에 관심있는  
 30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문수민 신부, (010)9487-9182

### 산내 치유 피정

기간: 10.20(화)~21(수)  
 장소: 효령 하늘집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 하는 주고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선착순 10명)  
 문의: 동천성당, 326-5004

### 매듭을 푸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치유의 피정

기간: 11.6(금) 10:00~8(일), 2박 3일  
 마감: 11.2(월) / 참가비: 12만 원  
 장소: 사수동 베네딕도 수녀원 영성관  
 지도: 문봉한(야고보) 신부  
 문의: 베네딕도수녀원, 587-7300

### 미리내성모성심수녀회 옥잠화 피정

기간: 10.3(토) 16:00~4(일) 15:00  
 장소: 용인분원  
 문의: (010)5208-6773

### 힐데가르트 생태영성 피정

기간: 10.10(토) 15:30~11(일) 16:30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 6만 원  
 문의: 툃핑포교베네딕도수녀회  
 313-3425

### 천생연분 맺기 3단계 피정

비신자와 짝짓기 마라(2코린 6,14)  
 지도: 최원석 신부, (010)6377-2846  
 네이버 카페: 모곡 피정의집  
 문의: 사무실, (033)434-0695

## 교육 | 모집

###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는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 빛 떼제 기도

일시: 10.10(토) 18:0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식사, 떼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신청: (010)9056-9005

### 자율형사립고 대건고 2016 입학설명회

인성 등업, 학력 등업, 대건 등업  
 일시: 10.3(토) 14:00, 대건고 안드레아관  
 접수: 11.2(월)~5(목)  
 문의: 입학홍보실, 235-4560

### 제47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설명회: 10.31(토) 14:00, 남산성당  
 초·중·고: 1.6~2.21(3, 5주 선택)  
 대·일반: 1.3~2.14(6주, 장기 선택)  
 세계 각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  
 문의: 그린피시어엔티, (02)3446-4253

###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 인천교구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 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24평형 계약중, 35평형 마감  
 각종 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위치: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경일신경과·내과**  
 대표전화 053) 652-2525  
 2호선 내당역 2번 출구 (홀름리스 내당점 맞은편)  
 • 치매 / 뇌졸중 상담 268-2525  
 • M R I 예약 262-2525  
 • 위/대장 내시경, 성인병 종합검진

참소중한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

**미소인치과**  
 원장 이 종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회복**  
 www.misoindental.com **마감인원**

•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이스라엘, 요르단  
 출발일: 2016년 1월 19일 (12박13일)  
 • 홍콩, 마카오 성지순례  
 출발일: 2016년 2월 17일 (3박4일)  
**(주)성지여행** terrasancta tour  
 조 철 래(유스티노)  
**(053)253-3399** 홍 미 최(안젤라)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심건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나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국가등록업체 · 보충보통가임업체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회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서류중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젤마)  
 박요안나  
 상인점 홀름리스 맞은편 / 범어동 경신고 입구

**행사 | 모임**

**천주교대구대교구 대안교육 세미나**  
 일시: 10.16(금) 15:00~18: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  
 대상: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  
 주최: 대구가톨릭청소년회, 250-3037

**교육 | 모집**

**2016년도 베드로관 지원자 모집**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3 남학생  
 고등학교 과정을 담당사제와 함께  
 기숙사에서 공동체 생활  
 학업은 무학고등학교(경북 하양 소재) 재학  
 문의: 854-2085, keyofpeter@naver.com

**제5차 교구 청년국 비다누에바 연수**  
 기간: 10.30(금)~11.1(일)  
 장소: 꾸르실로교육관  
 대상: 20~35세 미만 미혼 청년  
 신청: 정혜진 율리안나, (010)4527-0400

**성프란치스코 축일 특강 및 추도식**  
 특강: 10.1(목) 20:00, 2(금) 20:00

추도식: 10.3(토) 18:00  
 장소: 월배성당  
 강사: 최문기(마티아) 수사  
 성인 유해 현시 및 강복과 함께 합니다.

**51차 선교대학**  
 백만불짜리 감동선교, 선착순 100명  
 일시: 10.17(토) 10:30~16:00  
 장소: 계산문화관(중식, 회비 무료)  
 문의: 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781-6100

**제2기 뿌에리 간또레스 합창단 모집**  
 대상: 초등 3학년~6학년  
 문의: 가톨릭 음악원, 255-4847

**채용 | 안내**

**김천 월명성모의집 직원 채용**  
 직종: 시설관리직 1명(대형버스 운전가능)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문의: (054)435-8122 / (010)9141-6219

**파티마홀 요양원 어르신 모집직원 채용**  
 입주: 장기요양등급 받은 여성 어르신  
 채용: 간호사, 요양보호사(복구 사수등)  
 문의: 324-1188 / (010)8595-1186

**바로로팔 서원 개원일시 변경**  
 실시: 10월 부터 / 휴무: 월요일  
 개원: 주일 12:30~19:3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국내입양전문)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노혜란, 유미라(임마누엘라),  
 조은정(로사), 이창훈(요한)

**이주민을 위한 영어 미사 안내**  
 매 주일: 근로자회관 11:00(마지막주 제외)  
 대안성당 14:00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15:00  
 성베네딕도회애관수도원 17:30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18:30  
 (마지막주 제외)  
 매월 첫 주, 마지막 주일: 죽도성당 15:00  
 둘째 주일: 성동성당 14:00  
 문의: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253-1313

**대구평화방송(FM 93.1)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대구대교구 원로 사목자와 원로 수도자의 삶을  
 나누는 휴먼 다큐 '임파라 사랑따라'  
 (대구평화방송 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 ~ 12시**  
 (주파수 안내: 포항 96.9MHz, 안동 100.7MHz, 김천 100.5MHz)

10월 3일(토)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정학근(모세) 수도 사제
10월 10일(토), 17일(토), 24일(토)	강택규(예로니모) 신부
10월 31일(토)	전주원(바로로) 신부

※ 특집 프로그램은 한국천주교 가두선교단 후원입니다.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서울 사무실 출대 앞  
 이원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31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림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흥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스피치 전문의 가장 개발센터!  
**Speech.Kim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교육 [예약] 김민지(사바나)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임산부인과**  
 보형공단 저금경부암검진, 오실금클리닉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여성성형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박의현 구심내과**  
**서정의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로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상운(안젤로)  
 송정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